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분석: Q방법론적 접근

김은주* 이영경** 연희정***

A Study on the Image Type of the Korean Traditional Child Rearing:
Focused on Mothers with Infancy and Early Childhood

Kim, Eun Ju Lee, Young Kyoung Yeon, Hee Jong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유형과 그 특성을 Q-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육아를 경험한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어머니들에게 전통육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여 Q-모집단을 마련하였다. 그 중 4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여 Q-표본을 만들고, 40명의 어머니들에게 진술문의 동의수준을 9단계로 분류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QUANL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전통육아에 대한 인식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 '조화로우며 통한 관계 지향적 육아', '한국 고유의 전승 가치를 담은 원형적 육아', '생명을 존중하는 실천 중심적 육아', '현대적 변형이 필요한 애착육아'로 명명되었다. 이 연구는 어머니들이 가지는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육아의 전승과 효과적 실천을 위한 실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 주제어 : 전통육아, 전통육아법,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Q방법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부산대학교 BK21 플러스 연구원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yeonhj92@hanmail.net)

I. 서론

“Podeagi” 영어로 쓰여진 철자가 꽤 낯설게 느껴진다. 서양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었던 육아법이 이제는 한국에는 없고 서양에서는 늘어나고 있다. 최근 많은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을 신체 접촉에 인색한 서양의 독립 육아방식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전통육아방식이 재조명 받고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정보들의 생성과 소멸이 급진적이며 복잡화되고 있고 사회구조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반성적 사고를 할 여유를 제공해주지 않으며 무한 경쟁의 사회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어령의 말처럼 ‘업고 업히는 상생의 원리’를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육아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덕승, 2012 재인용).

전통이란 집단 또는 공동체를 통하여 지나간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면서 전해 오는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국립국어연구원, 1999)으로, Gross(1992)는 전통을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신념체계나 사고방식 및 구체적인 실천들로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전통이란 한 사회 내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와 공감에 의한 결과(박덕승, 2012)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가치관 또는 사상이라 할 수 있겠다. 육아방식 또한 과거에 이루어져왔던 환경이나 양육행동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전통육아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임재해(2012)는 현대 유아교육 내부에서 재정립해야 할 전통육아는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답게 기르는 우리 고유의 육아법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전통육아에서 육아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각종 서적과 언론 매체를 통해 육아방식을 배우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저출산 해결문제, 올바른 출산법, 육아법, 부모의 역할 등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육아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은 복잡하면서도 활발하다. 이러한 많은 정보들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가지는 양육불안감의 증가 원인은 넘쳐나는 육아 정보들이 가지는 특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 정보들의 대부분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전문가들의 조언들로 이루어져 있고 실천보다는 지식위주로 구성되어 있다(안세희, 2013; 조미진, 김광호). 즉 한국 전통사회에서 각 가정마다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형성된 우리 어머니들의 전통적 양육방식은 서구의 자녀 양육법에 비해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인 것이라 여겨져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제작된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이란 다큐멘터리는 전통육아법이 과학적으로 유의미하며 선조의 지혜를 담고 있어 오늘날 육아법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EBS 다큐프라임, 2012). 이처럼 전통적인 육아방식이 현대에 와서 새롭게 재조명되는 일은 바람직하나 그에 대한 연구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박덕승, 2012).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쉬운 출산 방식, 올바른 수유 시간, 이유식 조리방법, 떼 쓰는 아이 다루는 법 등 메뉴얼화 되어 있는 육아 방식이 현재 가지는 육아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광호와 조미진(2012)은 글로서 시범적으로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을 가르쳐주기보다 부모들의 내면에 가진 육아 본능을 깨우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육아방식에 대한 연구는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가족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전통 육아방식에 대한 연구를 대표하는 유안진(1986)의 ‘한국의 전통적 육아방식 연구’를 비롯해 특정 지역의 전통 양육을 연구하는 이경화(2003), 조복희, 이재연, 윤종희(1993), 의 연구 및 태교, 수태, 아동교육 등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육아의 과정에 따른 안세희(2013)의 연구, 전통육아의 세대 간 비교 연구(유가효, 1999; 민하영, 유안진, 2003)들은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육아방식에 대해 상당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전통 사회에서 행해지던 부모의 육아행동을 수집하고 유형화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전통 육아에 대해 한국 부모들이 가지는 인식을 대변하는 데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사회 육아방식의 실천을 형성하는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사고방식, 가치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또한 전통육아 방식에 대해 세대 간 차이를 조사한 유가효(1999), 민하영과 유안진(2003)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육아는 할머니 세대에서 어머니 세대로 전이되는 동안 상당히 변화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세대에서 전통 출산 풍속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예전의 방식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양육 방식을 결정짓는 현대 어머니 세대가 가지는 전통육아에 대한 사고방식 및 가치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한국인 고유의 전통육아에 대한 사고방식, 가치관을 통틀어 전통육아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인식은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다르게 이끌어 내도록 하는 특성에 주목하였다(하봉준, 1999).

부모의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결정하므로(하순련, 서현아, 201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생각하는 전통육아는 자신의 양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는 사람마다 가지는 주관적인 이미지를 갖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은하, 고은경(2008)은 이미지란 개인이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상의 종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앞서 밝힌 전통육아에 대한 개념적 의미와 함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부모, 특히 부모역할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중요하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어머니 세대의 육아방식을 이끄는 전통육아에 대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주관적 이미지를 양화시켜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 Q방법론적 접근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는 것은 현대 어머니들의 내부적 의견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개개인이 가진 의미나 가치가 내재화되어 나타나는 과정이므로 전통육아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육아에 대한 어머니들의 다양한 생각, 감정, 느낌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여 유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통육아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하며 전통육아 실천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며 앞으로 전통육아가 올바르게 전승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의 절차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가지는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방법론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개인이나 소집단이 지니는 태도나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방법이며 외부로부터의 설명이 아닌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 방법이다(김홍규, 2008). 이에 본 연구에 사용되는 Q-진술문을 추출을 위해 심층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전통육아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 및 질문지의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심층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설계

단계	단계별 세부내용
1단계 Q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모집단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육아를 경험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6인 심층 면담 -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 배부 및 회수 - 심층면담과 질문지 결과를 바탕으로 Q-모집단 구성 • Q-표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과 교수 1인 및 Q방법론 연구경험이 있는 유아교육 전공 박사 2인에게 의뢰하여 Q-모집단에서 Q-표본 선정 • Q-카드와 Q-표본 분포도 작성
2단계 P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40명 편의표집
3단계 Q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대상에 대한 일반적 배경에 대한 내용 답변 • Q 표본 분류(동의하는 것, 중립, 동의하지 않는 것의 세 집단으로 분류한 뒤 정상 분포에 가깝도록 강제 분포하여 분류) • Q 표본 분류 후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거나 가장 부정적인 이유를 밝히기
4단계 자료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

1) Q-모집단의 구성

Q-모집단을 선정하는 방법은 문헌고찰, 심층면담 등이 있으며 Stephenson에 의하면 Q-진술문은 인간 상황을 왜곡하여 설명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김홍규, 2008). 본 연구에서는 Q-진술

문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진술문은 113개였다.

(1) 심층면담을 통한 Q-모집단 추출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명, 유아기 자녀를 둔 3명, 예비 어머니 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두 전통육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면담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담 대상자의 진술내용은 녹음과 필사의 과정을 거쳐 의미있는 진술문 24개를 추출하였다.

- “ 전통육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 “ 전통육아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 “ 전통육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2) 질문지를 통한 Q-모집단 추출

본 연구에서는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개방형 질문지를 경남 및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75명을 대상으로 배부하였다. 어머니들에게 전통육아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질문지를 배부하여 미응답 설문지를 제외한 74개의 질문지를 통해 89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2) Q-표본 선정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Q-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중복되는 진술문은 제거하였으며 대표성 있는 최종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여기에 어머니들의 설문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난 진술문 8개를 추가하였다. 추출된 Q-표본은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Q방법론 연구경험이 있는 유아교육 전공 박사 2인의 협의를 거쳐 문장에 쓰인 용어의 적절성, 진술문 간 상호배타성 등을 고려하였다. Q-표본의 수는 연구의 독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Q표본의 수에 따라 소팅과정에서 연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김홍규, 2008) 본 연구에서는 40개의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Q-표본은 <표 2>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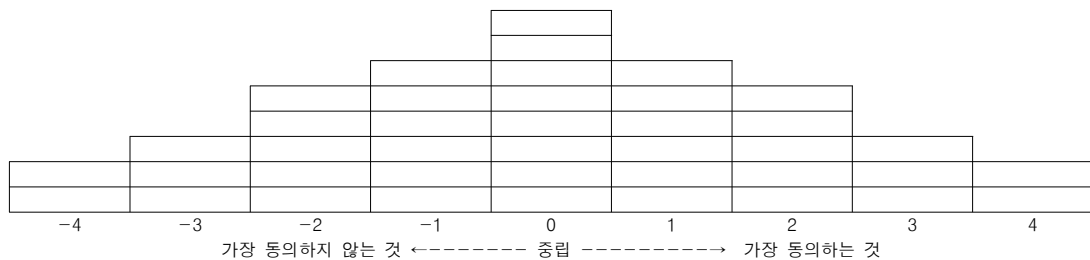
<표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Q표본의 진술문

Q-표본
1. 단동식혼, 포대기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2. 신체와 정서 모두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3. 전통육아의 시작 주로 태교부터이다.
4. 전통육아방법은 부모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수 있다.
5. 아이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다.
6. 현대 육아법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든다.
7. 생명을 존중하는 육아법이다.
8. 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
9. 세대 간에 양육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10. 전통육아방식은 다양하지 못하다.
11. 육아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12. 전통육아 놀이방식은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것이다.
13.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로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14. 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
15.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다.
16.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다.
17. 전통육아는 현대육아방법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18. 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
19. 전통육아는 휴과 함께 하는 것이다.
20.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21.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전통육아법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2. 실천하는 것이 편리하지는 않다.
23.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
24. 전통육아는 자유롭게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25.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26. 남자가족의 역할이 적으며 여성에게 희생적이다.
27. 전통육아는 옛 조상들의 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다.
28. 삼신, 돌잡이와 같은 전통적인 풍습이 대표적이다.
29. 전통육아는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꾸어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30.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31. 부모보다는 조부모가 더 전문가이다.
32. 전통육아는 약을 먹이지 않는 것이다.
33. 또래 엄마들 보다는 조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낫다.
34. 교육적 의미는 부족하다.
35. 인격과 품성을 바르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36. 예절을 강조하는 육아법이다.
37. 전통육아는 많은 형제들이 있을 때 효과가 더 크다.
38. 집안 마다 내려오는 고유의 양육법이 있다.
39. 전통육아는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40. 자연물로 만들어진 놀잇감을 활용하는 것이다.

3) Q-표본 제시지와 Q-표본 분포도

추출된 Q-표본인 40개의 진술문을 포함한 제시지와 진술문을 동의 여부에 따라 기입할 수 있는 Q-표본 분포표를 준비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Q-표본 분포표 안에 가장 동의하는 것(+4)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4)까지 진술문의 번호를 기입할 수 있으며 총 40개의 진술문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마련하였다.



[그림 1] Q-표본의 분포표

2. P-표본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선정하

였으며 부산,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어머니 6명과 개방형 질문지에 참여하였던 어머니 75명 중 Q-분류에 참여한 P-표본은 40명이었다. 소표본 원리와 편의표집을 통해 선정된 P-표본은 평균연령이 33.95세였으며 모두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어머니들로 자녀가 1명인 어머니 15명, 2명인 어머니 18명, 3명이상인 어머니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 중 전통육아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30명이었으며, 전통육아경험이 없는 어머니는 10명이었다.

3. Q-분류 및 자료처리

연구자들은 효율적인 분류를 위해 어머니들에게 40개의 진술문을 읽게 한 뒤 각 진술문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진술문 제시지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동의하거나, 가장 동의하지 않는 두 진술문부터 오른쪽 끝(+4)과 왼쪽 끝(-4)에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모든 진술문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 끝에 기입된 진술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선정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여 추후 해석 시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는 Q표본의 분포표에 응답한 진술문 번호를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4)부터 가장 동의하는 것(+4)을 1점부터 9점까지 점수화하였으며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이겐 값 1.0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변화시켜 입력하여 산출한 결과 중 가장 최선이라 여겨지는 4가지 이미지 유형을 추출하였다. 각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술문별 표준점수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혹은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을 분석하였으며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어머니들이 기입한 진술문 선정 이유를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유형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가지는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의 백분율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아이겐 값	17.375	2.1053	1.5910	1.5116
변량 백분율	.4344	.0526	.0398	.0378
누적 변량 백분율	.4344	.4870	.5268	.5646
사례 수	12	8	8	12

각 유형별 변량은 제 1유형이 43.44%, 제 2유형이 5.26%, 제 3유형이 3.98%, 제 4유형이 3.78%로 4개 유형은 56.4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누적변량이 50% 이상일 때 그 응답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4개의 이미지 유형들은 어머니들이 가지는 전통육아

이미지를 타당하게 설명해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미지유형 4가지의 사례 수는 제 1유형이 12명, 제 2유형이 8명, 제 3유형이 8명, 제 4유형이 12명으로 나타났다.

<표 4> 유형 간의 상관관계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제 1유형	1.000			
제 2유형	.580	1.000		
제 3유형	.794	.535	1.000	
제 4유형	.789	.480	.729	1.000

각 유형별 상관계수는 유형 간의 상관정도, 유사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 1유형과 2유형의 상관계수는 .580,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794, 제 1유형과 제 4유형은 .789,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535, 제 2유형과 제 4유형은 .480,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729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 1유형과 제 3유형, 제 1유형과 제 4유형,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비교적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의 유형별 특성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유형과 그 특성별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모든 유형에서 상이한 표준점수를 가지는 진술문들을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공통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유형 간 공통된 의견 진술문

번호	Q진술문	평균표준점수
18	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	1.30
2	신체와 정서 모두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1.10
7	생명을 존중하는 육아법이다.	1.05
1	단동십훈, 포대기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94
5	아이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다.	.86
12	전통육아의 놀이방식은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것이다.	.74
19	전통육아는 흙과 함께 하는 것이다.	.43
36	예절을 강조하는 육아법이다.	.34
21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전통육아법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09
33	또래 엄마들 보다는 조부모 세대에서 배우는 것이 낫다.	-.34
22	실천하는 것이 편리하지는 않다.	-.58
26	남자가족의 역할이 적으며 여성에게 희생적이다.	-.69
10	전통육아방식은 다양하지 못하다.	-1.13
34	교육적 의미는 부족하다.	-1.27
30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1.37
23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	-1.74

<표 5>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4가지 유형의 어머니들이 높게 동의하는 진술문(표준점수 +1.00 이상)은 ‘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 ‘신체와 정서 모두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육아법이다.’의 진술문이었으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표준점수 -1.00이하)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교육적 의미는 부족하다.’, ‘전통육아방식은 다양하지 못하다.’로 나타났다. 즉 모든 유형의 어머니들은 전통육아가 부모, 아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하며 심신을 고루 발달시키는 생명존중의 육아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아동과 부모의 관계는 종속적이지 않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가진 다양한 육아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 제 1유형 : 조화로우를 통한 관계 지향적 육아

본 유형의 특성을 가지는 어머니들은 12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6>와 같다.

<표 6> 제 1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ID	인자 가중치	연령	육아 경험	자녀수	맞벌이 유무	전통육아 경험
1	11	1.8735	35	5년 미만	2	무	유
2	16	1.6050	38	10년 이상	3	유	유
3	10	1.3224	36	5년 미만	1	유	무
4	22	1.1318	34	5년 미만	2	무	유
5	3	1.1005	38	10년 미만	2	유	무
6	36	1.0802	37	5년 미만	2	유	유
7	17	.9429	33	5년 미만	1	유	유
8	12	.9331	38	5년 미만	2	유	유
9	2	.8804	34	5년 미만	2	무	무
10	14	.8708	35	10년 미만	2	무	유
11	25	.7343	32	1년 미만	1	유	유
12	8	.7295	36	5년 미만	1	무	유

<표 7> 제 1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18	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	1.64
35	인격과 품성을 바르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1.37
14	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	1.36
39	전통육아는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1.33
2	신체와 정서 모두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1.24
15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다.	1.23
40	자연물로 만들어진 놀잇감을 활용하는 것이다.	1.03
12	전통육아 놀이방식은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것이다.	1.03
11	육아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1.32
30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1.43
9	세대 간에 양육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1.54
16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다.	-1.60

23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	-1.60
10	전통육아방식은 다양하지 못하다.	-1.64
8	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	-1.76

제 1유형의 어머니들은 ‘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Z=1.64)’에 가장 동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격과 품성 바르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Z=1.37)’, ‘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Z=1.36)’, ‘전통육아는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Z=1.33)’, ‘신체와 정서 모두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Z=1.24)’,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다(Z=1.23)’의 순으로 높은 동의를 보였다. 반면 가장 낮게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은 ‘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Z=-1.76)’, ‘전통육아방식은 다양하지 못하다(Z=-1.64)’,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Z=-1.60)’,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다(Z=-1.60)’, ‘세대 간에 양육갈등을 일으키기 쉽다(Z=-1.54)’,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Z=-1.43)’, ‘육아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Z=-1.32)’의 순이었다.

제 1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은 전통육아가 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바른 인성을 기르는 한국 고유의 육아이며, 사랑을 통해 심신을 골고루 발달시키고, 가족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나타내었다. 그리고 비과학적이거나 다양하지 못하며,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13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로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553	-.331	.884
15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다.	1.227	.484	.742
19	전통육아는 흠과 함께 하는 것이다.	.937	.254	.683
21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전통육아법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507	-.050	.557
35	인격과 품성을 바르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1.371	.910	.461
18	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	1.644	1.185	.459
34	교육적 의미는 부족하다.	-.941	-1.374	.433
12	전통육아 놀이방식은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것이다.	1.025	.638	.387
23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	-1.603	-1.781	.179
7	생명을 존중하는 육아법이다.	.985	1.071	-.086
5	아이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다.	.697	.917	-.220
36	예절을 강조하는 육아법이다.	-.040	.467	-.507
10	전통육아방식은 다양하지 못하다.	-1.643	-.953	-.690
27	전통육아는 옛 조상들의 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다.	.482	1.346	-.864
6	현대 육아법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든다.	-.905	.152	-1.057
9	세대 간에 양육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1.545	-.275	-1.270

제 1유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높게 부정하는 진술문에는 ‘세대 간에 양육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현대 육아법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든다.’ 등 있었다. 즉 본 유형의 어머니들은 전통육아의 실천이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며 현대 육아법과 비교할 때 비용과 노력면에서 전통육아법이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제 1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인자 가중치가 높은 응답자들이 기술한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 선택 이유를 알아보았다. 제 1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11번 어머니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15.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다.’와 ‘39.전통육아는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를 선택하였고,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는 ‘8.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와 ‘9.세대 간에 양육갈등을 일으키기 쉽다.’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육아와 현대육아를 서로 비교하여 생각하기 이전에 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그 바탕에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은 가족 모두에게 있으며 그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당연히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전통육아는 그 근거를 알지 못함으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통육아법을 잘 알아보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면 매우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부모님이 양육한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세대간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서로의 방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양육으로 인한 갈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16번 어머니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14.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와 ‘18.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를 택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는 11번 어머니와 동일하게 ‘8.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와 ‘9.세대 간에 양육갈등을 일으키기 쉽다.’를 정하였다. 진술문 선택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전통육아란 현대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육아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더욱 예전의 육아법을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자연을 통한 많은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부모와 아이가 끈끈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아방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보다는 더 많은 경험자의 조언을 통해 조화로운 육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인자가중치를 통해 제 1유형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2명의 어머니는 모두 전통육아가 비과학적이라는 것과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오히려 부모님 세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통육아의 실천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11번 어머니는 양육의 기본은 사랑임을 강조하며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육아를 위해 노력할 것, 즉 협력적 육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16번 어머니는 전통육아를 통해 현대육아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며 자연과 아이, 부모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음에 전통육아에 대한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제 1유형의 어머니들은 전통육아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추구하며, 사랑을 전제로 바른 인성과 심신의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 가족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는 한국 고유의 육아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과학적이지 않으며 아이와 조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원만함을 이루는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제 1유형의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유형을 ‘조화로움을 통한 관계지향적 육아’로 명명하였다.

2) 제 2유형 : 한국 고유의 전승가치를 담은 원형적 육아

제 2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는 모두 8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9>과 같다.

<표 9> 제 2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ID	인자 가중치	연령	육아 경험	자녀수	맞벌이 유무	전통육아 경험
1	31	.8038	33	1년 미만	1	유	유
2	38	.7573	37	5년 미만	2	유	유
3	30	.6571	42	10년 이상	3	유	유
4	20	.5575	29	5년 미만	1	무	유
5	5	.4768	36	10년 미만	2	유	유
6	4	.4606	38	10년 이상	1	유	유
7	32	.4578	37	10년 미만	2	무	유
8	26	.4065	29	5년 미만	2	무	유

<표 10> 제 2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27	전통육아는 옛 조상들의 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다.	2.17
14	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	1.71
28	삼신, 돌잡이와 같은 전통적인 풍습이 대표적이다.	1.60
3	전통육아의 시작 주로 태교부터이다.	1.29
1	단동심훈, 포대기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1.20
18	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	1.10
35	인격과 품성을 바르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1.09
7	생명을 존중하는 육아법이다.	1.06
10	전통육아방식은 다양하지 못하다.	-1.01
16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다.	-1.03
13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로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1.03
37	전통육아는 많은 형제들이 있을 때 더 효과가 크다.	-1.07
32	전통육아는 약을 먹이지 않는 것이다.	-1.31
38	집안 마다 내려오는 고유의 양육법이 있다.	-1.55
34	교육적 의미는 부족하다.	-1.56
23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	-1.70
30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1.87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제 2유형을 구성하는 어머니들에게 높은 동의를 보이는 진술문은 ‘전통육아는 옛 조상들의 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다($Z=2.17$)’, ‘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Z=1.71$)’, ‘삼신, 돌잡이와 같은 전통적인 풍습이 대표적이다($Z=1.60$)’ 등이었다. 반면 높게 부정을 보이는 진술문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Z=-1.87$)’,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Z=-1.70$)’, ‘교육적 의미는 부족하다($Z=-1.56$)’ 의 순이었다. 이처럼 제 2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은 전통육아에 대해 예부터 전해오는 한국 고유의 육아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삼신, 돌잡이와 같은 구체적인 전통 풍습을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로 가장 많이 떠올렸다. 그리고 상상력 및 창의력과 같은 교육적 의미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

해 부정하였으며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시적이고 소유물로 여기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표 11>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28	삼신, 돌잡이와 같은 전통적인 풍습이 대표적이다.	1.596	-.151	1.747
31	부모보다는 조부모가 더 전문가이다.	.649	-.851	1.500
11	육아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275	-1.219	1.494
27	전통육아는 옛 조상들의 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다.	2.173	.782	1.390
20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591	-.791	1.382
8	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	-.787	-1.738	.951
26	남자가족의 역할이 적으며 여성에게 희생적이다.	-.130	-.880	.750
14	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	1.711	1.034	.676
16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다.	-1.029	-1.681	.652
17	전통육아는 현대육아방법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348	-.947	.599
22	실천하는 것이 편리하지는 않다.	-.259	-.693	.434
15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다.	.220	.820	-.600
30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1.874	-1.197	-.677
32	전통육아는 약을 먹이지 않는 것이다.	-1.315	-.592	-.723
24	전통육아는 자유롭게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555	.363	-.917
40	자연물로 만들어진 놀잇감을 활용하는 것이다.	-.303	.796	-1.100
39	전통육아는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082	1.218	-1.136
13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로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1.034	.198	-1.232
37	전통육아는 많은 형제들이 있을 때 더 효과가 크다.	-1.072	.370	-1.442
29	전통육아는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꾸어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973	.867	-1.841
38	집안 마다 내려오는 고유의 양육법이 있다.	-1.546	.405	-1.952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제 2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삼신, 돌잡이와 같은 전통적인 풍습이 대표적이다.’, ‘부모보다는 조부모가 더 전문가이다.’, ‘육아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통육아는 옛 조상들의 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다.’,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등의 진술문에 높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집안 마다 내려오는 고유의 양육법이 있다.’, ‘전통육아는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꾸어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전통육아는 많은 형제들이 있을 때 더 효과가 크다.’ 등에서는 타 유형보다 낮게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 2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산육속과 같은 전통풍습, 조부모, 조상으로부터의 이어받는 전통육아 전승의 가치에 동의하였으며 집안마다의 독특한 육아방식과 현대여건에 맞는 변형된 방식추구, 많은 형제 등을 전통육아와 연관시켜 떠올리는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어 인자가중치가 높은 2명의 어머니들이 가장 높게 동의하고, 가장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통해 제 2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31번 어머니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6.현대 육아법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든다.’와 ‘27.전통육아는 옛 조상들의 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다.’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10.전통 육아방식은 다양하지 못하다.’와 ‘17.전통육아는 현대육아방법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전통육아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육아법이고 옛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비용이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통육아 방식으로 아이들을 다 길러냈는데 요즘은 외국의 방법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 방법에 비해 부족하다고 하거나 다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다른 부모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가중치가 제 2유형에서 두 번째로 높은 38번 어머니는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으로 ‘14. 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 와 ‘27. 전통육아는 옛 조상들의 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다.’ 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으로 ‘16.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다.’ 와 ‘23.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 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고유의 육아이며 선조들로부터 이어 받아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육아는 권위적이지 않고 허용적이라는 생각이 들며 아이를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함께 하는 사람이라 여기는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기술한 응답 속에서는 전통육아에 대해 ‘우리나라’, ‘옛 조상’, ‘선조’ 와 같이 전통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를 나타내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통육아방식의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의 종합해보면 제 2유형의 어머니들은 전통육아에 대해 오래전부터 조상에 의해, 조부모에 의해 전해오며 따라 더욱 가치가 있음을 표현하였고 삼신사상이 담긴 한국 고유의 육아방식을 떠올렸다. 또한 상상력, 창의력을 포함하여 전통육아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제 2유형을 ‘한국 고유의 전승가치를 담은 원형적 육아’ 라 명명하였다.

3) 제 3유형 : 생명을 존중하는 실천 중심적 육아

본 유형의 특성을 가지는 어머니들은 8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12>과 같다.

<표 12> 제 3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ID	인자 가중치	연령	육아 경험	자녀수	맞벌이 유무	전통육아 경험
1	39	1.1323	34	5년 미만	2	무	무
2	28	1.1151	37	10년 미만	2	무	무
3	27	.8366	36	5년 미만	2	유	무
4	33	.7990	32	5년 미만	1	무	유
5	37	.7505	33	10년 이상	3	유	유
6	6	.7128	35	5년 미만	1	무	무
7	13	.7007	33	5년 미만	2	유	무
8	40	.6886	39	10년 미만	3	무	무

<표 13> 제 3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3	전통육아의 시작 주로 태교부터이다.	1.66
18	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	1.46
1	단동심훈, 포대기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1.46
14	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	1.40
27	전통육아는 옛 조상들의 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다.	1.09
29	전통육아는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꾸어 육아 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1.06
7	생명을 존중하는 육아법이다.	1.02
26	남자가족의 역할이 적으며 여성에게 희생적이다.	-1.09
11	육아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1.67
17	전통육아는 현대육아방법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1.68
8	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	-1.79
23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	-1.90
16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다.	-2.20

제 3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이 가지는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높은 동의와 낮은 동의를 보이는 진술문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이는 진술문은 ‘전통육아의 시작은 주로 태교부터이다($Z=1.66$)’이며 차례로 ‘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Z=1.46$)’, ‘단동심훈, 포대기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Z=1.46$)’ 등의 순으로 알아볼 수 있다. 반면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이는 진술문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다($Z=-2.20$)’,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Z=-1.90$)’, ‘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Z=-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 3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은 전통육아의 시작을 임신 중에 태교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으며, 부모, 아이,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육아라고 인식하며 단동심훈, 포대기와 같은 전통육아법을 떠올렸다. 하지만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라는 점에는 매우 부정적인 동의를 보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4>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38	집안 마다 내려오는 고유의 양육법이 있다.	.932	-.421	1.353
4	전통육아방법은 부모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수 있다.	.584	-.663	1.247
3	전통육아의 시작 주로 태교부터이다.	1.657	.781	.876
33	또래 엄마들 보다는 조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낫다.	.223	-.525	.748
32	전통육아는 약을 먹이지 않는 것이다.	-.234	-.952	.718
1	단동심훈, 포대기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1.458	.765	.693
37	전통육아는 많은 형제들이 있을 때 더 효과가 크다.	.522	-.161	.683
9	세대 간에 양육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124	-.749	.625
30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965	-1.500	.535
23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	-1.898	-1.683	-.245
2	신체와 정서 모두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846	1.186	-.340

8	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	-1.787	-1.404	-.353
12	전통육아 놀이방식은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것이다.	.385	.852	-.467
19	전통육아는 휴과 함께 하는 것이다.	.042	.553	-.510
26	남자가족의 역할이 적으며 여성에게 희생적이다.	-1.088	-.561	-.527
21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전통육아법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12	.223	-.535
25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101	.703	-.602
16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다.	-2.196	-1.292	-.904
35	인격과 품성을 바르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337	1.254	-.917
11	육아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1.668	-.571	-1.098
17	전통육아는 현대육아방법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1.682	-.503	-1.179

제 3유형의 어머니들은 다른 유형의 어머니들에 비해 ‘집안 마다 내려오는 고유의 양육법이 있다.’, ‘전통육아방법은 부모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수 있다.’는 문항에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전통육아는 현대육아방법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와 ‘육아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에 낮게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제 3유형의 어머니들은 전통육아가 담은 한국 고유의 가치 외 각 집안이 가지는 고유의 육아방식을 덧붙여 중시하였으며 부모교육을 통해 전통육아의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였다. 또한 전통육아 방식은 현대의 육아와 비교하여도 부족함이 없으며 어머니들이 겪는 육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임을 인식하였다.

제 3유형의 인자가중치가 높은 어머니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 선택이유를 살펴보았다. 인자가중치가 1.1323으로 제 3유형의 특성을 가장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39번 어머니는 ‘18.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 ‘27.전통육아는 옛 조상들의 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다.’의 문항에 가장 동의하였으며 ‘8.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 ‘31.부모보다는 조부모가 더 전문가이다.’의 문항에 가장 낮게 동의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39번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포대기 같은 것, 천기저귀를 쓰는 것 등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것은 자연과 아이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같은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고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이를 생명으로 바라보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통육아라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고 조부모로부터 전해진다고 하지만 육아에 있어 전통적인 것은 부모가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양육기준에 맞추어 자녀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자가중치가 1.1151로 제 3유형에서 두 번째로 높은 28번 어머니는 ‘3.전통육아의 시작 주로 태교부터이다.’와 ‘4.전통육아방법은 부모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수 있다.’를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하였으며 ‘16.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다.’, ‘23.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의 진술문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택하였다. 그 이유에 대한 어머니

의 생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번과 4번을 선택한 이유는 임신을 하면서 육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태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젊은 어머니 세대는 전통육아가 무엇인지, 왜 좋은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교육의 트렌드를 따라가기에 바쁘지요. “요즘엔 뭐가 좋더라.”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이 모르기 때문에 실천이 어려운 것입니다.’

‘6번과 23번을 선택한 이유는 전통육아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밑에 있는 존재로 여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제 3유형을 대표하는 두 어머니가 기술한 응답에서 ‘포대기’, ‘천기저귀’, ‘도리도리’, ‘잼잼’, ‘태교’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단동십훈’을 구성하는 ‘도리도리’와 ‘잼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전통육아는 조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으로는 실천이 어려우며 부모가 전통육아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거나,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즉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전통육아의 가치를 비롯해 구체적 방법을 습득할 것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모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 3유형의 어머니들이 가지는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의 특성은 태교를 전통육아의 시작으로 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태아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육아로 대표되는 방법들도 사람을 비롯한 자연 모두를 존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으며 그 실천을 위해서 부모교육과 같은 지원이 주어지더라도 부모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제 3유형을 ‘생명을 존중하는 실천 중심적 육아’로 명명하였다.

4) 제 4유형 : 현대적 변형이 필요한 애착육아

본 유형의 특성을 가지는 어머니들은 12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15>와 같다.

<표 15> 제 4유형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ID	인자 가중치	연령	육아 경험	자녀수	맞벌이 유무	전통육아 경험
1	29	1.3163	28	5년 미만	1	유	유
2	21	1.2692	32	5년 미만	1	무	유
3	35	1.0711	33	10년 미만	2	유	유
4	15	.9396	34	5년 미만	1	유	유
5	7	.9018	35	5년 미만	2	유	유
6	9	.8348	33	5년 미만	1	무	유
7	1	.8360	29	10년 미만	2	무	유
8	18	.7069	33	5년 미만	1	유	유
9	24	.6391	37	10년 미만	3	유	유

10	19	.6231	36	10년 미만	3	유	유
11	34	.6078	37	1년 미만	1	유	무
12	23	.4394	43	10년 이상	3	유	유

<표 16> 제 4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29	전통육아는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꾸어 육아 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1.78
39	전통육아는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1.48
25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1.40
2	신체와 정서 모두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1.34
35	인격과 품성을 바르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1.30
7	생명을 존중하는 육아법이다.	1.14
5	아이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다.	1.05
40	자연물로 만들어진 놀잇감을 활용하는 것이다.	1.05
22	실천하는 것이 편리하지는 않다.	-1.05
20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1.12
30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1.20
31	부모보다는 조부모가 더 전문가이다.	-1.23
16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이다.	-1.25
4	전통육아방법은 부모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수 있다.	-1.33
34	교육적 의미는 부족하다.	-1.60
8	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	-1.66
23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	-1.75

제 4유형의 어머니들은 ‘전통육아는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꾸어 육아 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Z=1.78$)’, ‘전통육아는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Z=1.48$)’,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Z=1.40$)’의 순으로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Z=-1.75$)’, ‘전통육아는 비과학적이다($Z=-1.66$)’, ‘교육적 의미는 부족하다($Z=-1.60$)’의 순으로 낮게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 4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다른 유형의 어머니와 다르게 전통육아가 현대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여건에 맞게 변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키는 육아로 여기고 있었다. 더불어 아동에 대한 종속적 인식, 지시적 태도에 대해 가장 동의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전통육아가 비과학적이며 교육적 의미가 부족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낮은 동의를 보였다.

<표 17>제 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29	전통육아는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꾸어 육아 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1.783	-.051	1.834
25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1.397	.271	1.126
24	전통육아는 자유롭게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785	-.084	.869

39	전통육아는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1.479	.752	.727
36	예절을 강조하는 육아법이다.	.874	.162	.711
40	자연물로 만들어진 놀잇감을 활용하는 것이다.	1.049	.346	.704
6	현대 육아법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든다.	.341	-.263	.604
10	전통육아방식은 다양하지 못하다.	-.863	-1.213	.350
2	신체와 정서 모두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1.345	1.020	.325
5	아이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다.	1.055	.797	.258
7	생명을 존중하는 육아법이다.	1.138	1.020	.118
18	부모, 아이,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	.990	1.403	-.414
34	교육적 의미는 부족하다.	-1.603	-1.154	-.449
1	단동심훈, 포대기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546	1.069	-.524
33	또래 엄마들 보다는 조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낫다.	-.776	-.192	-.584
22	실천하는 것이 편리하지는 않다.	-1.052	-.429	-.623
20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1.118	-.222	-.896
28	삼신, 돌잡이와 같은 전통적인 풍습이 대표적이다.	-.396	.514	-.910
31	부모보다는 조부모가 더 전문가이다.	-1.227	-.225	-1.001
3	전통육아의 시작 주로 태교부터이다.	.199	1.267	-1.068
14	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	.351	1.488	-1.136
4	전통육아방법은 부모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수 있다.	-1.326	-.026	-1.300

제 4유형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표 17>을 살펴보면 제 4유형의 어머니들은 다른 유형의 어머니들에 비해 ‘전통육아는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꾸어 육아 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에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전통 육아방법은 부모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 ‘전통육아의 시작 주로 태교부터이다.’, ‘부모보다는 조부모가 더 전문가이다.’ 등의 진술문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제 4유형의 어머니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전통육아가 가지는 고유의 가치, 전통육아 실천을 위한 교육, 전통육아 전승에 조부모의 역할, 전통육아의 시작시기 등을 통해 전통육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정도가 매우 낮았다. 또한 전통육아가 현대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 변형은 필수적이며, 아이와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는 육아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인자가중치가 높은 2명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진술문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4유형을 가장 잘 대표하는 29번 어머니는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14.우리나라 고유의 육아법이다.’, ‘29.전통육아는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꾸어 육아 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를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 ‘4.전통육아방법은 부모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수 있다.’, ‘23.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지시적이다.’를 선정하였다.

‘오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이어가려면 약간의 변형을 통해 현대의 여건에 맞출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 전통육아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21번 어머니는 ‘25.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29.전통육아는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꾸어 육아 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의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며 ‘31.부모보다는 조부모가 더 전문가이다.’, ‘33.또래 엄마들보다는 조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낫다.’의 문항에 가장 동의하지 않았다.

‘25번과 29번을 선택한 이유는 전통육아가 요즘의 여러 가지 방식보다 아이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육아도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나의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물어보고 배우지만 항상 나에게 맞도록 바꾸어 활용하고 있어 그들이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또래 아이를 가진 엄마들과 공유하였던 육아방법이 더 도움이 되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어머니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통육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방식을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형할 것을 함께 동의하였고 그 실천에 있어 부모가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제 4유형의 어머니들은 전통육아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실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변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통육아란 사랑을 통해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또한 실천에 있어 조부모보다는 부모의 비중을 높게 여기며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전통육아가 비과학적이며 교육적 의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유형을 ‘현대적 변형이 필요한 애착육아’로 명명하였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떠올리는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를 Q-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육아란 ‘조화로움을 통한 관계 지향적 육아’, ‘한국 고유의 전승가치를 담은 원형적 육아’, ‘생명을 존중하는 실천 중심적 육아’, ‘현대적 변형이 필요한 애착육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유형은 ‘조화로움을 통한 관계 지향적 육아’로 응답자의 43.44%가 포함되어 있었다. 본 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은 먼저 전통육아를 통해 부모와 자녀,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오래 세월 뿌리내려온 관계주의 문화(최상진, 2000)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관계 중심적 특성은 서구와는 매우 다른 부분이며, 부모 자녀관계를 시작으로 더 큰 사회,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의 관계로 확대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민규, 김효창, 김수정, 조연동, 2007; 현정환, 2007). 우리나라의 민속 문화와 조선시대 회화 속에서 육아와 아동의 생활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최기영, 이정미, 2002; 편해문, 2003)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부모, 조부모, 형제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고 가족과 이웃, 마을, 자연과 더불어 아이들이 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조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원만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가족 형태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아이

를 키워왔던 전통사회 육아의 특성과 유교의 영향을 받은 부모-자녀 중심의 가족관계문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이원영, 1998). 즉, 한국 사회에서 전통육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넘어 가족과 자연이 함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더불어 함께하기를 실천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 부모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저 출산, 맞벌이, 특히 핵가족 확대를 비롯해 과중한 학업, 놀이문화상실, 스마트폰 문화 등은 부모의 육아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아동의 신체, 정서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황혜자, 김지영, 2001).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전통육아의 특성 중 한국 고유의 육아가 비과학적이지 않으며 사랑을 전제로 바른 인성과 심신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신 발달 측면은 모든 유형의 어머니들이 동의하는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이다. 이는 인성이 바른 아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데 한국의 전통육아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대변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국의 문화가 잘 반영된 전통육아의 방법을 기본으로 부모와 자녀, 가족과의 관계를 지원하는 육아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가 갖는 여러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 2유형은 ‘한국 고유의 전승가치를 담은 원형적 육아’로 본 유형에 속한 어머니들은 전통육아에 대해 오래 전부터 조상에 의해, 조부모에 의해 전해오는 전승적 가치를 먼저 떠올렸다. 특히 전통육아의 전승에 있어 조부모 보다 더 윗세대인 조상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삼신, 돌잡이 풍습을 전통육아로 떠올리는 특성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데 삼신은 무속 신화 속에 등장하는 것으로 잉태, 출산 뿐 아니라 15세 정도까지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었던 조상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유안진, 1990). 또한 이경화(2003)의 제주도 전통육아에 대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돌잡이와 같은 아기행사, 단동심훈과 같은 아기 놀이, 포대기, 태교와 같은 한국 고유의 육아방식들은 모두 세대 간 자연스럽게 전이가 이루어진 것들로 조부모 세대만큼의 실천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채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다(한승희, 2004). 현 어머니세대에서 실천률이 높은 전통육아방식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대해 추후 연구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음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실천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제 2유형의 특성을 가진 어머니들은 상상력, 창의력을 포함하여 전통육아가 높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지금까지 잘 알려진 전통놀이가 가지는 가치와도 같은 맥락이다(김미애, 류경화, 2004; 이숙재, 2001). 또한 상상력과 창의력은 어린 나이에 발달하는 능력으로 초기에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환경이 아동의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Torrance(1976)와 Gardner(1993)의 연구가 이를 보완해주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가 창의성이 뛰어난을 김수연(2003)의 연구를 통해 접할 수 있으며 최익정, 최영희(2004)는 창의성의 하위요인으로 상상력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장 높은 상관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대등하게 여기는 전통육아에 대한 이미지와 연결시켜 볼 수 있으며 전통육아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며 비지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전통육아의 교육적, 발달적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제 2유형의 어머니들 전원이 전통육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육아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 경험이 한국 고유의 육아법이 가지는 교육적, 발달적 가치에 대해 깨닫

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승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전통육아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여 그 본연의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전통육아의 경험과 관련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 3유형은 ‘생명을 존중하는 실천 중심적 육아’로 태교를 전통육아의 이미지 속에 가장 먼저 떠올렸으며 모든 유형의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부모, 아이,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생명의 탄생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서 ‘점지 받는 것’으로 여겨 질 만큼 우주-자연-인간의 결합 및 조화로운 관계가 핵심이었다(임소영, 김은주, 2011). 태교는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행하는 모든 노력의 총체로서 현재 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사람을 비롯한 자연 모두를 존중하는 특성을 가진다(신미아, 최정현, 2010; 위혜숙, 2004). 이는 ‘생명’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지하의 생명사상을 고찰해 본 박영신과 김은주(2004)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육아에 있어 태아에 대한 존중을 넘어 생명존중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3유형의 어머니들은 오랜 시간동안 경험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생명 탄생의 가치를 전통육아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태교를 전통육아의 시작으로 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생명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단동십훈, 포대기와 같이 현재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전통육아의 일부분을 떠올렸다. 제 3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어머니가 기술한 의견 속에서 발견한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과 같은 아기 놀이는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에서 모두 실천하고 있는 것(한승희, 2004)으로 단동십훈을 구성하는 놀이 중 하나이다. 단군시대부터 전해져 오며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단동십훈은 최근 들어 현대 과학의 지식으로 그 효과가 평가되고 있어 전통육아가 비과학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대변해주고 있다(EBS 다큐프라임, 2012). 현재까지 지켜지고 전승되는 전통육아방식 중 하나로 포대기 육아를 빼놓을 수 없다. 김은주(2012)는 서양에서 들여온 아기 띠와 다르게 아기를 뒤로 업게 되면 아기가 엄마의 시선을 따라가며 다양한 사물을 접할 수 있어 기초생활교육, 인간관계 교육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캥거루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를 키우는 우리들의 모습에 아이들은 외로움을 모르고 자라게 된다는 이어령(2009)의 말처럼 포대기 육아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스킨십과 관련된 장점 외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어깨너머 교육이 일어난다는 교육적 의미도 살펴볼 수 있다. 단동십훈, 포대기와 같은 전통육아가 가지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그 속에 담긴 과학적이고, 교육적이며 사회적인 가치 모두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유형에 속한 어머니의 75%가 전통육아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며 전통육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높게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과학적 지식 교육을 받는 요즘 세대 엄마들의 특징을 드러내는 부분이며 전통육아방식이 과학적,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진 육아정보들에 비해 미덥지 않고 불안한 육아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김광호(2012)의 의견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육아 본능이 약해진 한국 어머니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통육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며 실천을 위해서 부모교육과 같은 지원이 주어지더라도 부모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수동적으로 육아 지식을 쫓아가기 바쁜 어머니들과는 달리 스스로 전통육아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으므로 육아 전반에 있어 구체적인 실천이 담긴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자신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육아방식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지만 실천하고 있는 전통육아방식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들이 접한 전통육아방식의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이 실제 육아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추후 연구를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제 4유형은 ‘현대적 변형이 필요한 애착육아’로 본 유형을 구성하는 어머니들은 한국의 전통적 육아 지혜가 현대사회에 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부모가 그 주체로서 육아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전통육아방식을 활용하되 내 아이에 맞게, 현대적 여건에 맞게 변화를 줄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제 3유형의 어머니들과 비교해볼 때, 부모교육을 통한 전통육아방식의 전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이 매우 달랐다. 이를 통해 부모로서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믿음과 양육자적 효능감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자녀의 발달에 있어 부모 스스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느끼고 있는 어머니들로 여겨진다. 또한 제 4유형의 어머니들은 사랑을 통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전통육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한국 전통사회 육아의 현대적 의의를 구명한 박덕승(2012)의 연구에서 밝혀지는 애착육아의 특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육아법은 애착육아라는 이름으로 유아의 정서함양, 부모와 아이 간 사랑의 교감 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사랑을 통해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실천에 있어 조부모보다는 부모의 비중을 높게 여기는 특징을 가진다. ‘애착 양육(attachment parenting)’은 미국의 소아과 전문의 윌리엄 시어스 박사가 발달심리학의 애착이론에 근거를 두고 정의한 용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아기를 부모와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육아를 행해왔다. 모유수유를 비롯해 포대기, 부모와 함께 자기 등은 신체적으로 아이와 항상 가까이 접촉하며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며 대체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는 독립적 육아로 대표되는 서양육아법과 반대되는 것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을 가지고 있지만 서양 육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박덕승, 2012). 애착육아의 방식은 인류의 역사적 산물이라 할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실천되어 왔으며 모성호르몬, 육아 본능과 표현되는 것들과 맥을 같이한다(김광호, 2012; EBS 다큐프라임, 2012). 또한 전통육아를 부모교육을 통해 배우기보다는 또래 어머니들과 함께 육아에 대해 공유할 것과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 및 내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전통육아가 다음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에 그 원형적인 가치를 그대로 전승하는 방법도 보다 지금의 사회나 환경에 맞춰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전통 육아 이론과 방법들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들이 서로 만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소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함에 연구대상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통육아의 실천 방식과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며 그 경험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전통육아에 대한 인식과 실천과의 관계를 밝히는 후속 연구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전통육아가 후대에 전승되도록 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 국어연구원 (1999). **표준 국어대사전**. 서울: 두산 동아.
- 김광호 (2012). 지식과 본능의 충돌, 이 시대 엄마들은 불안하다.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25-137.
- 김미애, 류경화 (2004). **놀이지도**. 서울: 도문사
- 김수연 (2003). 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간의 구조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주 (2012). **부산일보**. 2012. 3. 2.
- 김홍규 (2008). **Q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민하영, 유안진 (2003).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출생의례 및 아기 행사에 대한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24(3), 54-56.
- 박덕승 (2012). 한국 전통사회 육아의 현대적 의의. **韓榮論叢**, 16, 381-405.
- 박영신, 김은주 (2004). 김지하 생명사상의 생태유아교육적 함의. **생태유아교육연구**, 3(1), 21-42.
- 신미아, 최정현 (2010). 미혼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교인식 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13-624.
- 안세희 (2013).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전통육아의 의미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위혜숙 (2004). 육아 시초로서의 태교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가호 (1999).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의 비교 문화적 고찰과 방향모색. 한국 아동학회 9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63-88.
- 유안진 (1986).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안진 (199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경화 (2003). 제주지역 전통 육아문화에 대한 비교연구(1). **열린유아교육연구**, 8(2), 333-354.
- 이민규, 김효창, 김수정, 조연동 (2007).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한국적 문화 특성 연구: KBS 1TV <아침마당> 출연자들의 이야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3), 241-175.
- 이숙재 (2001). **유아 놀이 활동**. 서울: 창지사.
- 이어령 (2009).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10) 돌상 앞의 한국인4 어머니 어깨너머로 본 세상. 중앙일보 2009. 5. 4.
- 이원영 (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13, 1-18.
- 이은화, 고은경(2008).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이미지 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145-177.
- 임소영, 김은주 (2011). 태교에 대한 예비부모의 이미지 분석: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2(3), 327-349.
- 임재해 (2012). 한국 전통육아, 왜 잊혀졌는가?.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 2012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48. 6월 16일. 대전, 한남대학교 성지관.
- 조미진, 김광호 (2012).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서울: 라이온북스
- 조복희, 이재연, 윤중희 (1993).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1), 35-44.

- 최기영, 이정미 (2002). 조선시대 회화에 묘사된 아동의 양육과 생활. **한국아동학회지**, 23(1), 105-119.
- 최익정, 최영희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창의성과의 관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3), 63-70.
- 편해문 (2003). 우리 민속문화에서의 아이들 삶. **생태유아교육연구**, 2(1), 41-29.
- 하봉준 (1999). 제품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이미지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하순련, 서현아 (2013). 부모의 양육신념,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131-156.
- 한승희 (2004). 일 지역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전통 육아방식 비교.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정환 (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 황혜자, 김지영 (2001). 부모-자녀관계와 자녀 인성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개관. **학생연구**, 29, 79-96.
- EBS 다큐프라임(2012).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편. 2012. 1. 4.
-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 Books.
- Gross, D. (1992). *The past in ruins: Tradition and the critique of modernity*.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Torrance, E. P. (1976). *Guiding creative talent*. New York: Robert E. Krieger.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image types of the traditional child rearing by mothers with infancy and early childhood through Q-methodology. To conduct that, Q-group was first formed from mothers who raised their child in traditional way after their brainstorming about the method and interviewing them. Based on the subject's shared statements, Q-standard was made with 40 subjects. The 40 subjects were asked to grade each statement from one to nine and then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by QUANL program. The image types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There were 'Type 1: Relationship-oriented parenting through harmony' 'Type 2: Archetypal Parenting based on the Korean traditional values,' 'Type 3: Practice-oriented Parenting to respect life,' and 'Type 4: Attachment Parenting modern variants necessary.' This study serves as a momentum to see the impact of traditional child rearing on modern child upbringing by examining mother's viewpoints on traditional child rearing.

▶ *Key Words* : *Traditional Child Rearing, Methods of Traditional Child Rearing, Mother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Children, Q-methodology*

논문투고 2014. 08. 15.
수정원고접수 2014. 10. 01.
최종게재결정 2014. 10. 05.